

열아홉 번째 날_3월 10일 (수요일)

우리는 만나야 한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사무엘상 19:37a 개역개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중가요 “직녀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사를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중략)
... 연인아 연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이신 박종린 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7살의 나이에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북을 떠날 때, 그에게는 태어난 지 채 100일도 안된 딸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금방 돌아오려는 마음으로 잠자는 딸의 얼굴에 볼을 한번 비비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34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000년 9월, 1차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후, 2차 송환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올해 1월 26일 새벽 작고하였습니다. 굴곡진 한국 현대사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반도에는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다시 고향을 밟을 날을,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랫말처럼 이별이 너무 길고 슬픔이 너무 깊습니다. 이제 이별을 끝내고 슬픔을 끝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 6.15 공동선언 발표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중 양각도국제호텔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故 박종린 선생)

주님,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굽어 살피소서.
가족들이 속히 만나 슬픔을 끝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무 번째 날_3월 11일 (목요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에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40:3-5 현대인의 성경>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5만원~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남북통일을 염원한 민중가요입니다. 91년 노동자 노래단 “꽃다지”의 4집과 가수 신형원 씨가 자신의 6집에 수록하여 발표한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실제 택시기사로 통일이 된다면 자신의 택시를 몰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신명나게 달려보고 싶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나와있듯이, 서울에서 평양(250 km)까지는 광주(270 km)보다 가깝습니다. 하지만 38선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남북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를 참석을 위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김포공항에서 순안공항으로 가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하늘이 아닌 중국의 영공을 거쳐 “ㄷ” 형태의 항로로 비행을 해야했습니다. 분단 국가의 서러움이 아닐까 합니다.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 육로로 “서울에서 평양까지~~”노래를 부르며 실컷 달려보기를 소망합니다. (* 2008년 남북교회 평화기도회를 위해 타고 간 고려항공 비행기, 비행기 안에서 바라본 북녘 땅)

주님!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햇살의 봄이 오듯이, 한반도에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갈라진 땅과 하늘이 하나되게 하시고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 사진: 박지태 목사

스물 한 번째 날_3월 12일 (금요일)

일상에서 평화 실천하기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여호와와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시편 34:12-15 현대인의 성경>

평화를 위한 실천 7가지

오늘 우리의 기도 주제는 일상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은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일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찾아 실천하면 어떨까요? 고 홍근수 목사의 평화의 실천 7가지 제목만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첫째, 평화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 둘째, 평화를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 셋째, 평화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 넷째, 평화를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 다섯째,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 여섯째, 평화를 위해 창조하는 것입니다.
- 일곱째, 평화를 위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여러분이 행동하기에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되며, 평화롭게 하소서.
 제 친구가 행복하고 사랑 받으며, 평화롭게 하소서.
 제 원수도 행복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받고 평화롭게 하소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평화스럽게 하소서.
 전 세계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스물 두 번째 날_3월 13일 (토요일)

입양, 편견과 차별을 넘어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26-28 현대인의 성경>

하늘의 평화를 !

오늘은 입양 가정과 입양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의 애육원에서 놓고 있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안내원은 북에는 애육원, 보육원 출신들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럴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아기들을 해외로 입양보냈습니다. 입양아들이 더 좋은 환경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온 아이들 중에는 어떤 이는 불행히도 시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했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 하는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 또는 입양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문화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검은머리 짐승은 키우는게 아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친엄마는 어디에 계시니? (친엄마는 집에 있습니다. 낳아준 엄마는 생모 혹은 친생모라 부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친엄마에 대해 묻는데 그건 사실 굉장한 실례입니다.)” “뿌리 찾기” 등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에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성호, ‘입양 편견과 혐오 차별을 넘어’ 중에서>

‘혼혈아’라는 말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어쩌면 ‘다문화 가정 아이’이라는 말 자체가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요?

입양아나 입양 가족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는 곳이 지옥,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곳이 곧 평화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입양아와 입양가정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편견과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물 세 번째 날_3월 15일 (월요일)

꽃들의 향기 나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11 현대인의 성경>

나누기

꽃들의
향기 나누기
즐겁고,

개미들의
힘 나누기
즐겁고,

어른들의
나라 나누기
수십 년이 슬프다.

예수님,
남과 북, 북과 남의 동포들이
향기, 평화 그리고 통일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소서.
분열, 갈등, 미움 그리고 슬픈 대결은 이제 그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물 네 번째 날_3월 16일 (화요일)

여호와여 구해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지어,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도 나를 구해 줄 자 없을 것입니다. <시편 7:1-2 현대인의 성경>

이슬람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위협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이슬람무장단체입니다. 지난 해 12월 11일에 330명의 남학생을 납치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트시나주에서 남학생 기숙학교인 정부 과학중등학교에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남학생 약 333명을 끌고간 것입니다.이유는 ‘서구식 교육에 대한 저항’입니다. 보코하람은 2009년 이후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해온 이래 서구식 교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학교를 습격했습니다. 보코하람은 2014년 2월에 북동부 요베주의 대학교를 공격해 남학생 59명을 살해했으며 2개월 뒤에는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에서 공립 학교를 습격해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습니다. 2018년에 요베주의 학교를 공격해 여학생 111명을 납치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언론사에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카트시나에서 일어난 것은 이슬람을 진작시키고 비이슬람적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구 교육은 알라와 그의 신성한 예언자가 허용하지 않은 교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2009년 이후 3만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분쟁, 갈등, 전쟁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나이지리아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곳에서 종교, 경제, 부족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어루 만지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